

大學의 자율성

성기수(KIST 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위원)

매일경제 2.13 『매경춘추』

정부는 지난 20년간 대학입시에 개입해 오면서 거의 매년 제도를 고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사고의 규모나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대학입시 부정사건에 대해서도 예년처럼 관계자를 엄벌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함으로써 사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본가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전국의 대학입시를 획일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행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미국의 경우 교육관련 부처가 없는 상태에서 몇백년을 지내왔고 교육에서의 이같은 자율성 보장이 국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본다. 현행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대학을 육성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재정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극도의 암기경쟁으로 몰아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만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아마 대학에 가지 못했을 것이 확실하다. 그는 군사 훈련과목에서 실패하여 고등학교에서 퇴교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대학을 시도해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취리히대학에서 자율성을 발휘해 받아들임으로써 후에 과학자로서 대성할 수 있었다. 내신성적의 획일성도 문제이다. 수학을 잘한다는 것인지 체육을 잘한다는 것인지를 전혀 분간이 가지 않는 1등급 혹은 5등급 등의 숫자만 갖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또 상대적인 석차에 불과한 내신성적을 절대점수인 학력고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과 합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매년 대학입시에서 난이도 때문에 대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석차만을 요구하지는 않는

다. 또 중학교때의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대학도 있는데 이것은 6년간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보자는 것이다.

내신성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한 학생의 성장과정을 세밀하게 관찰, 물리학자가 될 것인지 의사가 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때 의미가 더 큰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형 교육제도로 방향을 수정할 때가 된 것 같다.